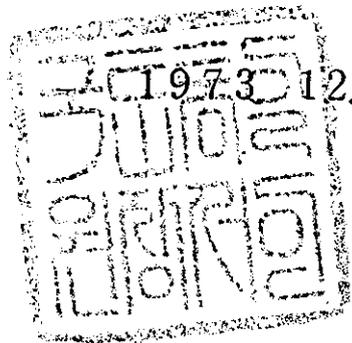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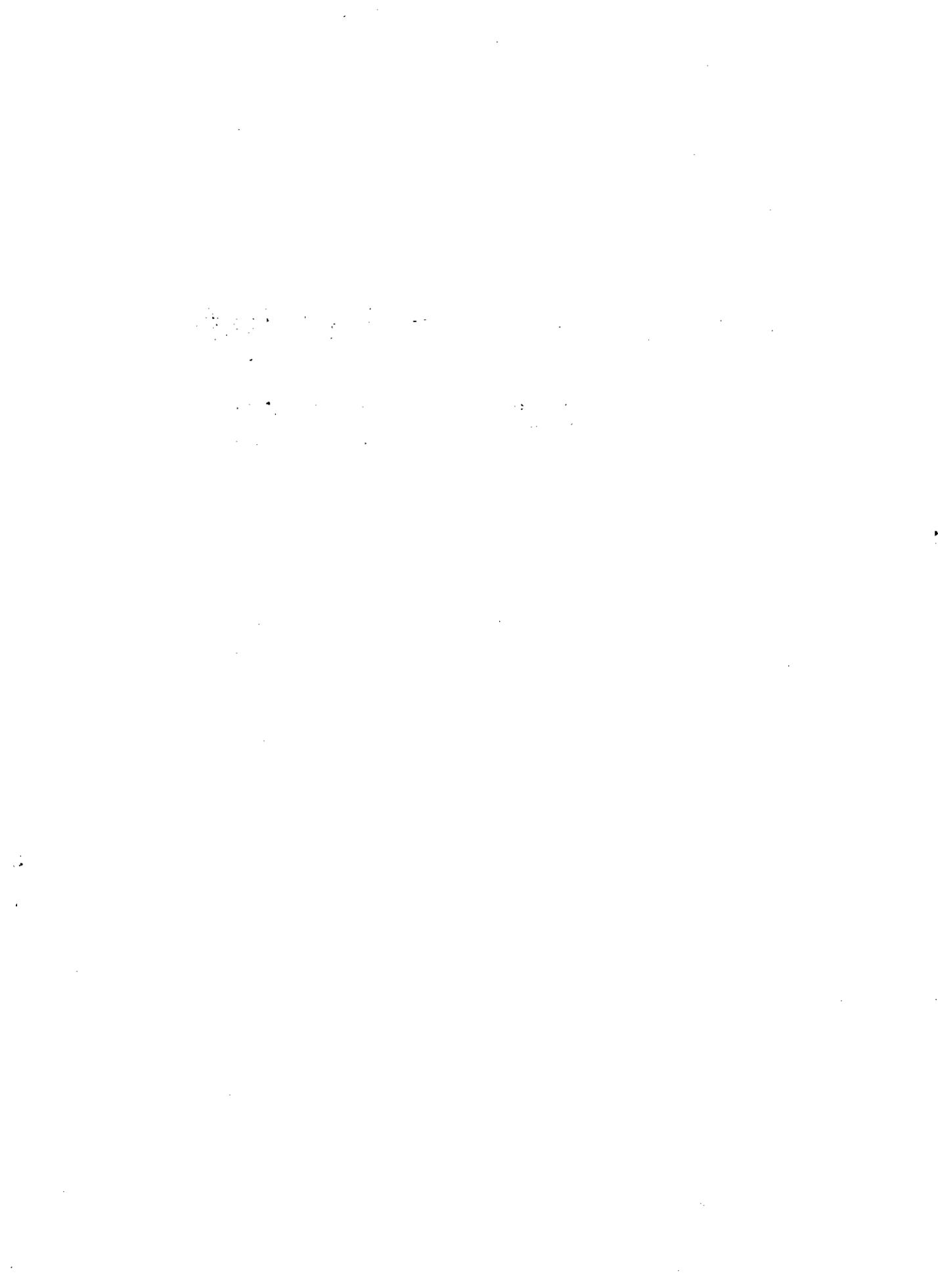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体制
構想과 韓國의 安保對策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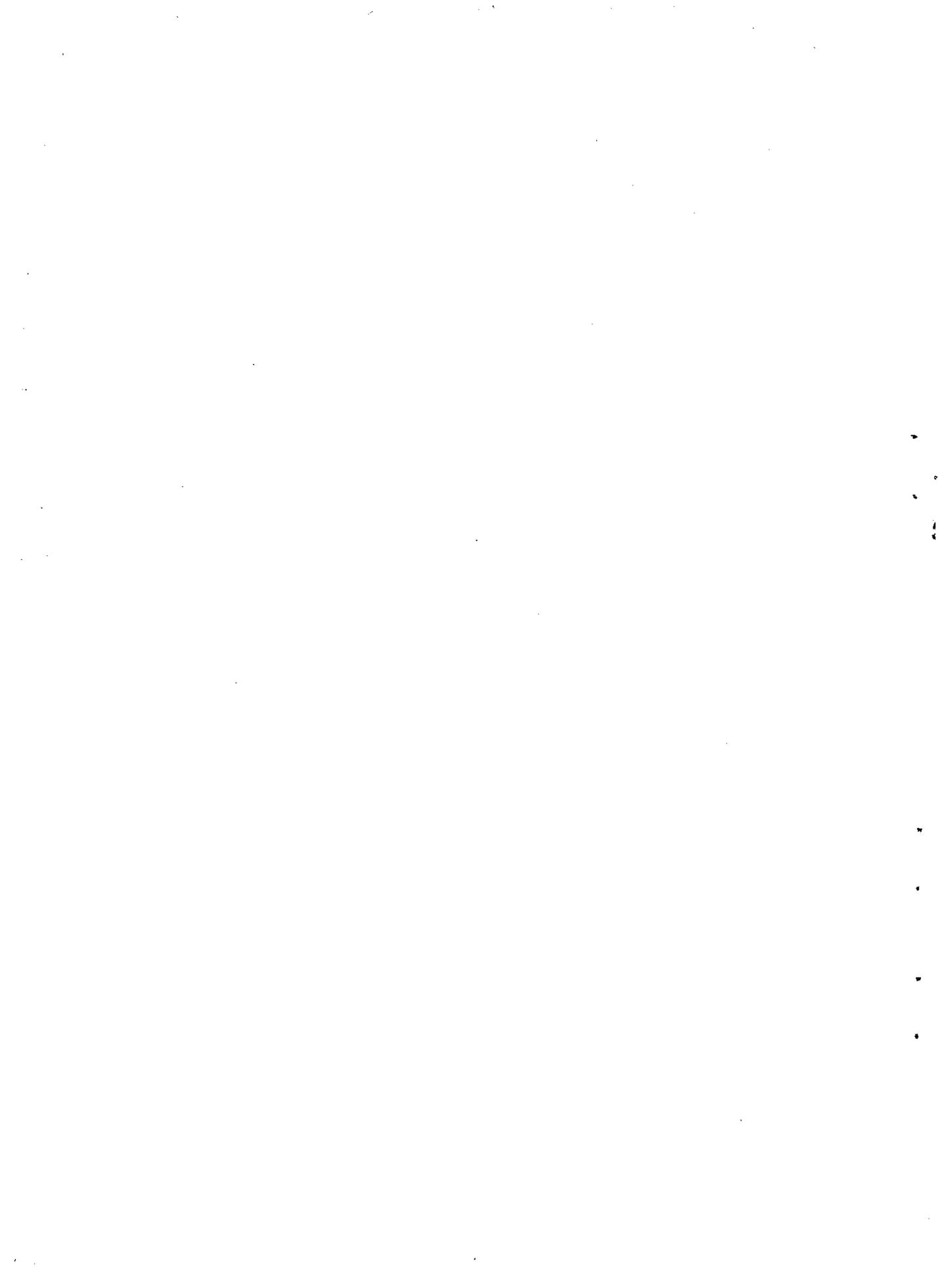
1973. 12.

연구책임자: 강 구 진

공동연구위원: 양 용 식, 임 문 순,
한 형 건

目 次

1. 問題의 提起	3
2. 積極的인 平和外交攻勢	9
3.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의 展開過程	17
4. 蘇聯의 對「아시아」進出現況	26
5. 「아시아」諸國의 反應	31
6. 同構想의 參與國家範圍 問題	38
7. 同構想의 不透明性에 對한 日本의 反應과 基本方針	42
8. 對備策	47



1. 問題의 提起

최근 蘇聯의 重要 「메스콤」은 그間 蘇聯이 推進해온 平和共存 政策의 成果를 誇示하는데 力點을 두고 活潑한 宣傳攻勢를 展開하고 있다. 蘇聯共産黨機關紙 「뿌라우다」(73.8.22日字)는 《平和共存과 階級鬭爭》이라는 論說을 통해서 今後 蘇聯의 平和外交政策의 基本方向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申明하고 있다. 『平和共存은 主權, 平等, 國家間의 領土不可侵, 크고 작든間의 內政不干涉, 모든 人民에 依한 社會, 經濟政策의 選擇權의 尊重, 未解決의 國際問題의 政治的 方法과 協商에 依한 解決, 이런原則들의 遵守가 不可決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은 現狀의 固定化,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을 核心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通해 國際 緊張의 緩和를 圖謀하고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間의 平和共存을 達成하여 最少의 희생으로 最大의 國家利益을 追求하려는 現實主義 的 外交戰略이다.

原來 平和共存政策은 資本主義의 붕괴는 不可避하다는 이론 바 「歷史的 必然性」에 對한 確信에 共産主義者들이 동요를 일으킨데 根本原因을 두고 있으며 冷戰下의 對決에서 보다는 協商을 通해서 보다 많은 國家利益을 획득할 수 있다는 現實主義에 基礎를 두고 있다.

赤化侵略政策으로부터 平和共存政策에로의 轉換은 急激한 國際的

환경要因의 變化 卽 美·蘇兩極体制의 붕괴와 이에 따르는 國家權力構造의 多元化로 因하여 보다 具體的인 樣相을 띠고서 蘇聯의 外交政策의 根本으로 굳어졌다.

勿論 蘇聯의 對外政策의 變化는 蘇聯側 一方에 依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美國을 비롯한 西方國家와 中共等 여러 나라와의 關係속에서 발미암아진 可逆反應的인 現象이기는 하지만 平和共存政策은 그것이 애초 어쩔 수 없이 出發을 보게 되었다는 點에서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과 制約을 스스로 認定한 바탕위에서 出發하고 있으며 過去의 赤化侵略政策과의 矛盾의 發生을 不可避하게 만들고 있다.

첫째, 現狀固定化는 相對勢力圈을 認定하는 것을 意味하며 強大國에 依해서 造成된 勢力均衡을 파괴하지 않는 範圍內에서의 競合的인 共存을 前提로 하고 있다.

둘째, 國際紛爭의 協商에 依한 解決은 敵對的 矛盾의 解決方式이 아닌 協調와 妥協, 利害의 共通點의 探索을 意味하며 이는 곧 資本主義國家 對 社會主義國家間에 存在하는 敵對的 矛盾의 非敵對的 矛盾에의 轉化의 可能性을 認定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여기서 가장 問題視되는 것은 平和共存과 民族解放鬭爭, 階級鬭爭間의 限界를 어떻게 設定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왜냐하면 蘇聯은 아직까지 機會가 있을 때마다 民族解放鬭爭(階級鬭爭)에 對한 積極的인 支援을 다짐하고 있는 터이므로 平和共存과 民族解放鬭爭間에는 實踐理論上의 矛盾이 分明히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相互 矛盾되는 論理는 最近發表된 「뿌라우다」紙의 여러 論說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美·蘇間의 協力이 發展하더라도 階級間의 差異를 解消시키지 못한다. 두 體制間—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에는 經濟, 政治, 「이데올로기」面에서의 階級鬭爭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歷史的인 必然性을 戰爭, 危險한 紛爭, 無制限의 軍備競爭이 아닌 方向으로 轉換시키기 爲해 努力해야 할 것이다. --- 두 體制間의 不可避한 鬭爭을 人民의 切實한 利益에 위협을 주지 않는 方向으로 轉換시키는 것은 現實可能하다. (「뿌라우다」1973. 7.22 日字「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美·蘇關係」)

1972年 5月과 1973年 6月の 美·蘇會談의 成果는 새 아무리 複雜한 懸案問題일지라도 平和共存에 立脚한 協商의 方法으로 解決이 可能한 것을 보여준 明白한 증거이다.」 「最近에는 社會問題가 階級鬭爭이 없는 科學, 技術革命의 方法으로 解決이 可能하다는 思想이 나타나고 있다. ---平和共存은 世界의 두 體制間의 敵對가 中止된 것을 意味하지 않는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歷史的으로 不可避한 階級鬭爭이 戰爭, 危險한 紛爭, 無制限의 軍備競爭이 아닌 方向에서 解決이 되도록 하기 爲해 努力하고 있다」 (「뿌라우다」 1973.8.22 日字 「平和共存과 階級鬭爭」)

「國際緊張이 緩和되고 異質的인 社會體制間의 平和共存原則이 確認되더라도 이것은 分明히 民族解放鬭爭을 철회하는 것을 意味하지도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緊張緩和가 造成되고 있는 現狀下에서도 蘇聯의 對外政策은 民族解放鬭爭과 反帝鬭爭을

支援하는 「레닌」主義的 原則를 견지할 것이다。」 (「뿌라우다」
1973.8.30 日字 「緊張緩和와 發展途上國家」)

「제 아무리 複雜한 國際紛爭일지라도 協商에 依한 方法으로 解決이
可能하다」와 「平和共存은 民族解放鬭爭과 階級鬭爭을 放棄하는 것을
意味하지 않는다」 間에는 理論上의 矛盾과 괴리가 存在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矛盾되는 論理는 앞으로 蘇聯의 指導層이 發展途上
國家에 對하여 유연하고 多樣한 戰略과 戰術을 擴大適用하려는 意圖
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自國의 安全을 위태롭게 할
武力對決을 回避하면서 同時 民族解放鬭爭과 階級鬭爭에 對한 支援을
계속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 中南美等 後進地域에 蘇聯의 영
향력을 擴大하려는 것이 平和共存政策의 本質이다.

이와 같은 「武力對決의 回避」와 「民族解放鬭爭과 階級鬭爭에 의 支援」
間에 內在하는 矛盾을 克服하고 調整하기 爲한 政治的 代案으로서
마련된 것이 바로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歐洲의 現狀固定化와 西方諸國과의 協調體制를
確立하는데 일단 成功한 蘇聯은 그들의 外交政策의 焦點을 「아시아
로 돌리고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의 實現을 위한 격렬한 平和外交
攻勢를 展開하고 있다.

現在 同構想은 「페르샤」灣에서 中東, 印度西大陸沿岸, 東南「아시아
太平洋을 잇는 中共包圍의 大戰略網의 形成企圖라는 색채를 짙게 풍
기고 있으나 此外에도 同構想은 다음과 같은 點에서 우리 非常한
関心을 끄는 許多한 點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로 同構想이 越南戰의 終結, 韓半島에서의 南北對話의 開始,

「라오스」內戰의 平和合意等 一聯의 「아시아」情勢의 好轉에 「타임밍」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事實 越南戰의 戰後處理問題, 「닉슨·독트린」의 適用에 따르는 副作用等 複雜한 問題를 안고 있으며 더구나 美·中의 接近, 日·中의 關係改善等 世界情勢의 急激한 變化에 「아시아」는 미처 適應을 하지 못한 채 新秩序를 摸索하는 過度期에 놓여 있다.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의 展開가 이러한 때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蘇聯이 「아시아」의 新秩序確立에 영향을 주려는 意圖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두번째로 「아시아」情勢가 아직도 不安定한 狀態에 놓여 있다는 特殊性이 強大國들에게 이미 造成된 勢力均衡을 自國에 有利한 方向으로 改編할 수 있는 余地를 提供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武力對決이 일어나지 않는 限度內에서 強大國들에 依한 勢力改編試圖는 계속될 것이다.

세번째로 全歐安保·協力會議가 開催의 實現을 보게됨으로써 國際的으로 集團安保體制에 對한 關心이 增加되고 있으며 「아시아」의 一部國家, 例를 들면 日本과 같은 나라에서는 「再保險外交」의 關點에서 現存防衛體制를 再評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을 들 수가 있다.

이상 考察한 바를 基礎로 하여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를 우리의 安保와 關聯시켜 볼 때 앞에서 提起된 問題點은 다음 두가지 問題로 焦點이 集約된다.

첫째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은 既存地域協力機構나 雙務 또는

防衛体制를 解体시키려는 意圖를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同時共存을 認定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의 參與國家 範圍에는 分斷國의 雙方(韓國과 北韓, 越南과 越盟)을 包含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韓國과 越南을 배제하는 것인가?

以上과 같은 問題點에 焦點을 두어 本研究報告書의 作業을 進行키로 하겠다.

2. 積極的인 平和外交 攻勢

이와 같은 「아시아」로 向한 蘇聯의 平和外交攻勢는 1973年 10月 「다나카」首相의 蘇聯訪問을 앞두고 最高絶頂에 達한바 있었다. 同時에 蘇聯은 平和外交攻勢와 並行하여 同構想의 實現을 積極적으로 反對하고 있는 中共에 對하여 熾烈한 非難攻勢를 激化시키고 있다.

最近 몇個月 동안 蘇聯이, 그들이 展開한 「平和外交」를 어떻게 宣傳하고 어느 程度 「아시아」集團安保와 日·蘇協力を 強調하고 있는가, 그리고 對中共非難을 어떤 樣相으로 展開하고 있는가를 蘇聯 高位層의 演說과 「뿌라우다」紙의 重要論說을 通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日·蘇協力を 強調 (73.7.26 駐日蘇聯大使 「드로야소프스키」의 東京에서 開催된 自民黨의 夏季研修會에서 行한 演說要旨

(가) 「아시아」는 平和와 友好, 善隣關係의 相互安保體制를 形成할 時期에 處해 있다.

(나) 「아시아」集團安保는 中共을 包圍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者が 있으나 이것은 眞지한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나카」首相이 表示한 「이니셔티브」를 높이 評價한다.

蘇聯은 日本과 合意에 到達하기 爲해 自己自身の 部分을 讓步할 用意가 있다.

(라) 蘇聯과 日本間에는 敵對的인 矛盾과 對立도 없으며 直接的인 障礙도 없다.

(2)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의 10個原則 提示(73.8.6 「이란」의

「호베이다」首相 환영만찬회席上에서의 「코시킨」首相의 演說가운데서 이에 該當되는 部分

(가) 「아시아」集團安保体制構想은 「아시아」의 모든 國家人民들의 커다란 目標로 되어 있으며 複雜한 問題가 介在되어 있음에도 同構想은 現實的이며 實現可能하다.

(나) 이것은 國家間의 武力不行使, 主權尊重, 國境不可侵, 內政不干涉, 完全한 平等과 相互 利益에 立脚한 廣範圍한 經濟協力の 發展을 圖謀해야 한다.

(다) 우리는 「아시아」集團安保体制는 各人民이 自己의 運命을 自己 스스로가 決定하고 侵略에 依한 領土併合을 禁止하고 모든 國際紛爭을 平和와 手段에 依하여 解決하는 것과 같은 諸原則을 嚴格히 준수하는데에 基礎를 두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라) 여기에는 또한 各人民들이 自己의 天然資源을 享有할 權利의 保障과 社會, 經濟改革의 權利保障이 첨가되어야 한다.

(마) 集團的인 原則에 立脚한 「아시아」의 安保를 確立하기 爲해서는 「아시아」國家들의 共同努力이 要求되고 있다.

(3) 「아시아」안보와 日·蘇協力を 強調 (73.8.7 일자 「푸라우다」
論說 「平和와 社会主義의 利益을 爲하여」中에서 이에 該當되는
部分)

(가) 蘇聯과 社会主義諸國은 國際緊張緩和가 全世界的인 性格을 띠고
있음에 注目하고 있으며 그런 意味에서 武力不行使, 主權尊重, 國境不
可侵等の 原則에 立脚한 「아시아」集團安보構想을 注視하고 있다.

(나) 「아시아」集團安보創設은 勿論 간단하지 않다. 「아시아」에는
不信을 퍼뜨리는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諸國間의 平等的
協力과 集團安보体制創設이 時急한 課題이다.

(다) 社会主義諸國의 目標은 「아시아」에 廣大한 地域의 平和勢力의
結集과 國際協力を 助長하는 것이다.

(라) 日·蘇關係의 實質的인 改善은 現在 이와 같은 國際關係發展
에의 一般的인 傾向에 適應하는 것이다. 日本과의 平和調整과 廣範圍
한 經濟協力の 達成은 日·蘇關係뿐만 아니라 全世界的 利益에 부합
될 것이다.

(4) 「아시아」集團安보体制構想의 形成을 呼訴 (1973.8.15 「카라크」
共和國首都 「알마·따」에서 行한 「브레즈네프」書記長의 演說中
에서 이에 該當되는 部分)

(가) 우리는 緊張緩和를 全 世界에 擴大하면서 이 過程에 「아시
아」가 광범위하게 包含시키는 것이 重要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나) 우리는 決코 全領土의 3分之2가 「아시아」에 屬해있는 蘇

聯의 利益追求를 爲해서 「아시아」安保体制의 形成을 推進하지 않으며 이 大陸의 地位, 世界政治에 있어서의 「아시아」國家들의 役割과 「아시아」自身과 「아시아」人民들의 利益을 고려하고 있다.

(라) 우리는 「아시아」의 情勢를 改함에 重要な 寄与를 하였다. 長期間에 걸쳐 있었으며 어려웠던 越南戰은 「베트남」人民의 勝利로 끝났다. 「라오스」에 있어서는 和平合意가 成立되었다. - - - 韓半島에 있어서는 平和적이고 民主적인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이니셔티브」에 依해서 새로운 肯定的인 契機가 마련되었다.

(마) 蘇聯은 中共과의 關係改善을 바라고 있으며 그를 爲해 모든 努力을 다하고 있다. 中共이 主權을 尊重하고 內政干渉을 하지 않고 社會主義諸國의 利益을 侵害하지 않는다면 中共과의 關係改善도 實現될 것이다.

(바) 그러나 「레닌」主義에 敵對되는 毛沢東主義에 對해서 斷乎하게 싸우겠다는 蘇聯의 基本的인 立場은 變化하지 않고 있다.

(5)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을 誇示(73.9.7 日字 「뿌라우다」論說 「平和共存과 階級鬭爭」中에서 이에 該當하는 部分)

(가) 第2次世界大戰의 遺産을 清算한 蘇聯·「포텐드」·東獨의 西獨과의 關係改善은 커다란 意義를 갖고 있다.

(나) 「유럽」安保協力會議의 第1段階會議은 「유럽」의 恒久的인 安保와 協力体制를 造成하기 爲한 前提條件을 만들었다.

(다) 1972年5月 美·蘇頂上會談에서 調印된 「美·蘇關係의 基本原則에 關한 共同文書」는 對立하는 社會, 經濟體制를 갖는 國家間의 平和共存을 條約의 形態로 具體化시켰다.

(라) 이 文書가 調印됨으로서 兩國의 關係는 急進展되고 相互協力の 基礎가 마련되었다.

(마) 1972年5月과 1973年6月의 美·蘇頂上會談의 成果는 幾아무리 複雜한 問題라 할지라도 平和共存에 立脚한 協商의 方法으로서 解決이 可能하다는 것을 例證하였다.

(미) 美·蘇間에 締結한 「核戰爭防止協定」은 國際安定保障體制를 實現시키는데 커다란 寄與를 하였다.

(6) 毛沢東指導部를 猛非難(1973.10.2日字 「뿌라우다」紙의 論說 「國際緊張緩和와 發展途上國家」中에서 이에 該當되는 部分

(가) 北京의 指導部는 世界平和와 人民을 爲한 安全保障을 反對하는 음모를 꾸미는데 있어서 추악한 役割을 하고 있다.

(나) 毛沢東主義者들은 근거없이 國際緊張緩和가 그들의 大國主義的이며 霸權主義的 目的追求에 背馳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 北京의 煽動員들은 發展途上國家들에게 두 超大強國(事實上에 있어서 蘇聯)에 對抗하기 爲해 聯合해야 한다고 상부적으로 말하고 있다.

(라) 그들은 發展途上國家들의 團結은 中共을 中心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中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暗示하고 있다.

(마) 中共의 指導部는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의 形成을 狂熱하게 反對하고 있다. 그들은 印支半島와 東南「아시아」의 懸案問題의 正常化와 正當한 解決을 反對하는 「캠페인」을 계속 展開하고 있다.

(바) 中共의 指導部는 自身을 發展途上國家들의 利益守護者로 自處하면서 이들 國家들을 희생시켜가며 帝國主義의 列強들과 한편이 될 用意가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以上 引用된 重要演說文과 論說에서 明白해지는 바와 같이 蘇聯이 最近에 와서 「아시아」集團安保体制構想의 形成을 急推進하게 된 背景으로서는

첫째 歐洲에서의 安保協力會議의 開催를 實現시킴으로서 歐洲全面的 安定을 期할 수 있게 되었고 그 結果 蘇聯은 中共과의 對決을 包 含하는 「아시아」外交에 全力을 傾注할 수 있는 能力이 생기고 歐 洲의 安保構想과 類似한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을 推進하는데도 自身 을 갖게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시아」情勢의 變化가 同構想到에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는 蘇聯側의 判斷이 그것이다. 「알마·따」에서 한 「브레즈네프」書記長의 演說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蘇聯은 越南戰의 終結, 「라오스」內 戰의 和平合意, 印度亞大陸에서의 正常化進展, 韓半島에서의 南北의 對 話等의 緊張緩和를 「아시아」集團安保体制形成에 利用하려고 試圖하고 있다.

세계 美中·日中の 接近으로 守勢에 몰렸던 蘇聯의 「아시아」外交가 反擊을 開始한 것을 들 수가 있다. 1973年6月 「브레즈네프」 書記長의 訪美結果 對美關係에 關한 限 蘇聯의 不安이 解消되었다.

또한 「다나카」首相의 訪蘇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日・蘇間의 關係正常化의 길이 열려 蘇聯으로서의 中共과의 對決外交를 果敢히 推進할 수 있는 態勢가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다. 蘇聯이 最近 中共周邊의 「아시아」諸國 特別히 韓國과 같은 反共國家에 對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것은 中共과의 영향력 競爭에서 主導權을 장악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中共과의 敵對的 對立이라는 立場에서 볼 때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은 蘇聯에 있어서 當面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有力한 武器로 되어있다.

그러면 蘇聯은 무엇때문에 「다나카」首相의 訪蘇에 매를 맞추어 「아시아」集團安保問題를 蘇聯의 外交舞臺에 「클러즈·엡」시키고 宣傳攻勢를 加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번의 「다나카」首相의 蘇聯訪問을 機會로 日・蘇兩國의 提携를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 日・中國關係를 圧倒하려고 하고 있는 것임이 明白하다. 또 하나는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日本이 차지하는 政治的, 經濟的, 重要性으로 보아 日本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의 參與없이는 同構想의 實現이 不可能하다고 蘇聯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로 蘇聯은 「시베리아」天然資源과 北方領土等 日本을 誘引할 수 있는 政治的 憧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蘇聯은 「시베리아」에 莫大한 量의 天然資源을 保有하고 있다. 勿論 沈滯一路에 있는 蘇聯經濟의 活路를 打開하기 爲해 先進西方國家들의 資本과 科學・技術을 導入하여 「시베리아」를 共同開發하려는 蘇聯自體內의 內的 要因이 支配的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지만 石油輸入의 海外依存도가 높은 日本으로서

도 石油輸入의 海外依存度를 緩和시키고 앞으로 豫想되는 「에너지」
危機에 対処하기 爲해서는 「시베리아」共同開發에 參與하지 않을
수 없는 弱點을 지니고 있다. 現在 日本이 「시베리아」天然資源開
發에 血眼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現在 日本內에는 北方領土를 蘇聯으로 부터 되찾아
야 한다는 與論이 비등하고 있으며 「다나카」政府에 對한 壓力이
漸增하고 있다.

地方領土의 返還問題에 있어서 強硬한 態度를 取해오던 蘇聯이 「
「다나카」首相의 訪蘇가 거의 決定되자 從來의 경직된 態度를 緩
和하여 日本의 態度如何에 따라서는 北方領土의 一部까지 讓步할
用意이 있다고 暗示한 點은 바로 地方領土問題를 政治的 흥정물로
삼겠다는 底意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3.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의 展開過程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이 展開되어 온 過程은 그의 特徵上 다음과 같은 2個의 段階로 区分될 수가 있다.

第1段階는 1954年 中共과 蘇聯의 共同提携下에 同構想이 最初로 提案되어 1958年에 이르는 期間으로서 中·蘇兩國의 單一體制가 持續되어 온 時期가 그것이다.

第2段階는 1959 ~ 1968年間的 空白期를 지나 1969年以後 現在에 이르는 期間으로서 이 段階에서는 初期段階에서 中·蘇兩國의 共同提携에 依해 提案되고 推進되어 온 同構想이 中共의 反對로 因하여 蘇聯側 一方에 依해서만 再論議되고 推進되어 왔다.

(1) 第一段階 (中·蘇密月時代 : 1954 ~ 1958年)

蘇聯의 高位層이 「아시아」安保體制構想到에 關해 처음 公式적으로 言及한 것은 1954年 4月29日 「제네바」會議에 參席한 蘇聯外相 「볼로토프」에 依해서 었다. 여기에서 注目해야할 事實은 「볼로토프」外相의 最初의 公式聲明은 바로 그 前날의 中共首相 周恩來의 聲明에 對한 反應이 없다는 點이다.

周恩來는 「아시아의 國家들은 아시아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데 自身の 責任을 다하고 共同努力을 模索하기 爲해서 서로 協議해야 한다」라고 聲明하였다. 「볼로토프」는 中共首相 周恩來의 見解에 完全히 同調하면서 「유럽과 아시아人民들은 유럽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全世界의 平和를 堅固히 하기 위한 関心을 增進시키기 爲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라고 言明하였다.

蘇聯은 1954年 5月 11日 中共首相 周恩來의 「아시아」安保에 對한 聲明을 거듭 支持하면서 좀더 發展시킬 형태를 取하였다.

「몰로토프」外相은 거듭 中共의 立場을 支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蘇聯은 모든 「아시아」人民을 爲하여 周恩來首相이 提案한 바와 같은 集團安保體制를 支持할 必要가 있다. 蘇聯은 好戰的인 軍事的 集團化의 必要를 排除한다면 集團安保體制를 支持할 것이다. 」

1955年 7月 30日 周恩來首相은 第一次 全國人民會議 第二期會議에 提出한 外交報告書에서 「美國을 包含한 「아시아」太平洋地域國家들은 集團的인 平和條約을 締結하고 그 條約으로 現在 이 地域에 있는 好戰的인 軍事同盟을 代替하기 바란다. 」라고 말하였다.

周恩來首相의 聲明에 對한 反應으로서 「흐르시초브」首相은 1956年 2月 蘇聯共産黨 第20次大會에 提出한 報告書에서 「아시아」集團安保體制推進에 對한 中共의 「이니셔티브」를 찬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偉대한 中共人民共和國은 周恩來首相의 「아시아」地域平和條約에 對한 提案을 通하여 이 時點에서 매우 重大한 役割을 遂行하였으며 現在 遂行하고 있다. 」

이와 類似하게 1957年 11月 12個의 社會主義國家共産黨에 依해서 發表된 「모스크바」宣言에서도 集團安保概念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言及된바 있다. 「會議參加者들은 平和의 維持, 戰爭反對, 平和共存의 維持,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의 集團安保體制의 확립에

대한 支持를 表明하였다.」

한편 中共은 1958年 4月7日 「루마니아」와의 共同声明에서 밝힌 것처럼 좀더 具體的이었다. 그 共同声明의 一部는 다음과 같다.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 軍事障營은 解体되어야 하며 그 代身 集團安保體制가 構成되어야 한다.」 또한 1960年 8月1日 「스위스」建國記念日에 열린 「리셉손」에서 周恩來首相은 「美國을 包含한 「아시아」太平洋地域의 諸國家들은 相互不可侵 및 平和協定을 縮結해야 하며 따라서 이 地域을 非核地帶化해야 한다.」라고 提議하였다.

以上 列挙한 中·蘇兩國의 同構想에 對한 여러 聲明을 考察하여 볼 때 이 段階(第一段階)에 있어서의 特徵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다.

첫째, 中·蘇紛爭이 表面化되기 以前에는 中共이 同構想을 먼저 提議하고 蘇聯이 이에 積極적으로 贊同하는 樣相을 띠었다.

여기 注意해야 할 것은 蘇聯이 「아시아」安保體制에 對한 中共의 「이니셔티브」를 認定하였다고 해서 그 當時 蘇聯은 集團安保構想에 對해서 中共에 뒤떨어지는 關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點이다. 事實 蘇聯은 1954年 11月13日 「유럽」安保會議을 提議하였고 東西「유럽」의 25個國家를 參席시키려고 招待한바 있었다. 蘇聯의 實際的인 動機야 어떻게 든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모임을 實際로 開催하려고 試圖하였다는 事實은 바로 重要한 意圖가 있었다는 証拠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蘇聯은 1955年 5月 東歐「유럽」7個국과의 「바르샤바」
條約을 締結하기 6個月前에 그 提案을 했다는 事實이다. 이 事實이
舍畜하는 바는 1949年 4月 北大西洋條約機構(NATO)가 決定되고
1951年 北大西洋同盟軍(Allied Powers in Europe)가 創設되었다
는 事實을 注目할 때 殊히 重要한 것이다.

둘째, 同構想到 對하여 中共이 蘇聯보다 앞서 提案하고 계속해서
中共이 「이너서티브」를 장악하였다고는 하나 同構想到 對한 提案이
거의 同時에 이루어지고 蘇聯이 中共에 못지않는 關心을 가졌었다는
點에서 同構想의 提案과 推進은 事實上 中·蘇兩國의 共同提携工에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蘇聯과 中共의 單一體制的인 團結과 紐帶關
係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의 不可欠한 前提條件 이었다. 이 前
提條件은 오늘날의 中·蘇紛爭의 激化되고 中共이 蘇聯의 「아시아」
集團安保體制構想을 決死的으로 反對하고 있다는 點에서 앞으로 同構
想의 向方을 決定짓는데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이다.

셋째, 이 時期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特徵으로서 中共의 提案은
比較的 具體的인데 反하여 그 問題에 對한 蘇聯의 聲明은 어느程度
基礎的이며 抽象的인 것으로 一貫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中共의 構
想은 「아시아」地域内の 雙務 또는 地域性格의 防衛條約機構를 解体
시키고 蘇聯의 集團安保體制로 代置하려는 目的을 뚜렷이 하고 있는
데 反하여 蘇聯의 構想은 이 點에 關해서는 明確치 않다.

(2) 第二段階 (中・蘇紛爭의 激化時代 : 1959 年 ~ 現在)

이처럼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은 1950 年代末까지 中・蘇兩國에 의해 꾸준히 提案되어 왔으나 1962 年の 中・印國境紛爭, 1967 年の 中東戰爭의 발발, 1966 年の 中共文化革命의 開始와 中・蘇紛爭의 첨예화, 越南戰의 激化로 因하여 內在化되어 그 以上 表面化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69 年 6 月에 開催된 世界共産黨大會에서 「브레즈네프」書記長이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을 公式的으로 提唱하여 同構想은 또다시 拳論되기 始作하였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브레즈네프」의 演說은 「----- 狀況의 發展에 따라 이제 「아시아」에 있어서 集團安保體制確立에 對한 問題는 議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간단히 指摘한데 그쳤을뿐 그 以前의 主張과 比較하여 進展된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過程을 밟아오다가 1972 年 3 月 20 日에 開催된 第 15 次 「소비에트」勞動者同盟全體會議에서 「브레즈네프」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 關해서 再論함으로서 同構想은 蘇聯의 外交舞臺에 本格的으로 登場하게 되었다. 「브레즈네프」는 勞動者들에게 「아시아」集團安保體制는 ①國家間의 武力不行使 ②主權尊重 ③國境不可侵 ④內政不干涉 ⑤平等, 互惠에 基礎한 協力の 擴大等の 5 原則에 基礎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런데 이어 1973 年 8 月 6 日 「코시킨」蘇聯首相은 蘇聯을 訪問한 「이란」의 「호베이다」首相환영 만찬회에서 演說을 하는 가

운데서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의 重要原則으로서 上원 「브레즈네브」書記長이 提示한 5個原則에 또다시 새로운 5個原則을 追加하였다. 그리고 「코시킨」首相은 同構想을 實現하는 데는 障礙가 存在하고 있음을 認定하면서도 이것이 實現可能하다고 強調하고 同構想의 基礎가 平和共存, 善隣과 協力を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指摘하였다. 「코시킨」首相이 提示한 10個原則은 다음과 같다.

- ①武力不行使 ②主權尊重 ③領土不可侵 ④內政不干涉 ⑤經濟協力
- ⑥各民族의 自決權尊重 ⑦侵略에 依한 領土併合禁止 ⑧一切의 國際紛爭의 平和的解決 ⑨天然資源保有에의 主權尊重 ⑩社會, 經濟改革의 權利保障.

이 段階에서의 特徵으로서는

첫째, 初期段階에서는 中·蘇兩國의 共同提携에 依해 同構想이 提唱되고 主張되어 왔으나 中·蘇紛爭이 激化된 段階에서는 同構想에 關한 提唱과 이의 推進은 蘇聯側 一方에 依해서만 이루어졌다.

둘째, 中共의 同構想에 對한 決死的인 反對는 同構想을 實現시키는 데 있어서 致命的인 打撃이 되고 있다.

셋째, 1954年 同構想이 처음 提唱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 까지 蘇聯은 同構想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問題—同構想이 政府 地域協力體制나 雙務 또는 地域防衛體制와 어떤關係에 있는가(排除냐, 共存이냐?)에 關해서는 明確한 回答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듯 蘇聯이 「아시아」의 安全과 平和를 保障함에 있어서 核心이 되고 있는 問題에 對하여 不透明한 態度를 取하고 있는 것은

(1) 「아시아」諸國의 反應을 銳意觀察하기 爲한 時間을 必要로

하며

(2) 蘇聯이 意圖하고 있는 窮極의 目標을 은폐하고 普編妥當性
이 있는 原則만을 내세워 「아시아」諸국이 同構想到 反對할
根拠를 주지않고 이들 國家들보다 빨리, 広範圍하게 誘引하기
爲한 意識的인 行爲인 것으로 評價된다.

同構想이 現存地域協力體制나 双務 또는 地域防衛體制를 排除하는
것이냐 아니면 同時共存을 認定하는 것인가 하는 問題는 우리의 安
保와도 直結되는 問題로서

(1) 排除하려는 意圖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아시아」의
勢力均衡을 파괴하여 「아시아」의 平和와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結果가 될 것이며 蘇聯의 構想은 「아시아」諸국의 反
撲에 直面하여 水泡로 돌아갈 可能性이 甚다.

(2) 또한 여기에서 同構想의 實現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要因
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은 中共의 同構想到 對한 否定的인
態度가 갖는 영향력이다. 中·蘇紛爭이 오늘날과 같은 狀態로
持續되는 限에 있어서는 同構想의 實現은 거의 不可能한 것
이다.

(3) 그럼에도 不拘하고 蘇聯의 同構想이 既存 地域協力體制나
双務 또는 地域防衛體制와의 同時共存을 認定하는 境遇 同構
想은 「아시아」諸국의 呼応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1973年7月3日 歐洲安保協力會議 第一段階會議에서 蘇聯
外相「그로미프」가 提出한 「安全保障과 國家間の 關係」에 關한 宣言

과 比較해 보기로 한다.

同宣言은 ①國家主權의 平等 ②國際紛爭解決의 手段으로서 武力行使 또는 武力에 依한 危脅의 포기 ③現在의 國境線에 基礎한 全歐洲諸國의 領土保全 ④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⑤內政不干涉 ⑥信仰의 自由를 包含한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尊重 ⑦自己의 運命을 定하고 스스로가 社會體制를 樹立하고 이와 같은 政府를 選擇하는 國民의 權利保障 ⑧國際平和와 安全保障을 維持하고 經濟, 文化 및 其他分野에서의 關係維持를 目的으로 하는 國家間의 協力 ⑨國際法에 規定한 義務의 遵守等 9個原則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볼 때 「코시킨」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 10個原則과 「그로미코」가 歐洲安保會議에 提出한 上記 9個原則間에는 地域的 特殊性을 反映한 몇個原則을 除外하고는 (10個原則의 ⑨項과 9個原則의 ⑥, ⑦項) 領土保全, 武力不行使, 內政不干涉等 現狀의 凍結, 正確히 말해서 現國境線의 固定化를 核心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거의 一致하고 있다. 差異가 있다면 「코시킨」의 10個原則은 現狀固定化를 爲한 하나의 「試圖」인데 比하여 「그로미코」의 9個原則은 이미 「試圖」의 段階를 넘어서 現狀固定化를 國際적으로 宣言케 하려는 差異밖에 없다.

「아시아」集團安保體制의 9個原則과 中共의 平和5原則을 놓고 볼 때에 있어서는 더욱 差異點을 發見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①領土保全 및 主權의 相互尊重 ②相互不可侵 ③相互內政不干涉 ④平等互惠 ⑤平和共存 一을 內容으로 하는 平和5原則을 蘇聯의 「아시

아]집 단안보체제의 10個原則이 모두 包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태
여 따진다면 蘇聯의 10個原則中の ③項의 領土不可侵과 平和5原則
의 ①項의 領土保全이라는 表現上의 差異를 들 수가 있다. 다시 말
하면 蘇聯이 말하는 「不可侵」과 中共이 主張하는 「保全」이라는
어휘가 各已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蘇聯이 使
用한 「不可侵」이라는 表現이 現國境線을 前提하고 있다는 것만은
明白하나 中共이 主張하는 「保全」이라는 어휘는 蘇聯에게 過去 不
當하게 빼앗긴 領土에 對한 반환까지를 意識하고 있는것이 아니냐고
解譯될 수도 있다. 그러나 蘇聯이 歐洲安協力會議에 提出한 9個
原則의 ③項에서도 分明히 「領土保全」이라는 말을 使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臆測도 無意味해 진다.

그보다는 蘇聯이 일부러 中共의 平和5原則과 조금도 背馳되지 않
는 原則을 「아시아」集團安協體制構想에서 내세우고 있다고 보는 것
이 妥當한 判斷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蘇聯은 「아시
아」集團安協體制를 極力 反對하고 있는 中共을 窮地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소련의 대「아시아」 진출현황

地中海로부터 始作하여 「페르샤」灣—印度亞大陸—東南「아시아」—太平洋에 이르는 中共包圍와 美軍勢力排除의 大戰略網의 形成— 이것이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가 意圖하고 있는 弱極의 目標이거니와 蘇聯은 이를 爲해 「페르샤」灣에서부터 印度亞大陸에 이르는 南「아시아」와 東南「아시아」를 同構想의 有力한 候補地로 간주하고 1971年 英皇의 「스에즈」以東撤收後 同地域에의 進出을 活潑히 展開하여 왔다.

以下 南「아시아」와 東南「아시아」에의 蘇聯의 進出現況은 다음과 같다.

(1) 南「아시아」 進出現況

(가) 印度

1971年 蘇聯, 印度, 平和 友好協力條約에 調印하고 여태까지 寄港地로 使用하고 있던 「아멘」·「보테이나」·「보로스단」灣에 追加하여 「비샤카바트남」港의 建設과 裝備를 援助하여 蘇聯艦隊의 基地化를 劃策하고 있다.

(나) 「벵그라데슈」

印·「파」戰爭當時 「벵그라데슈」沿岸에 침몰한 多數의 船舶引揚作業이 蘇聯의 援助로 이루어졌으며 「치다공」港이 蘇聯의 援助로 整備擴張되고 있어 事實上의 蘇聯海軍의 基地가 되고

있다.

(다) 「아프카니스탄」

1973年 5月 「포드고르나이」蘇聯邦最高會議幹部會議長이 「아프카니스탄」을 訪問함으로써 友好關係가 強化되고 1973年 7月 「아프카니스탄」의 政變時 蘇聯은 王政에서 共和制로 移行한 新政權을 재빨리 承認한 바 있다.

(라) 「이란」

1972年 「파레비」國王을 「모스크바」에 招請 期限 15年의 經濟 技術協力發展條約을 締結한데 이어 1973年 3月 「코시킨」首相이 「이란」을 訪問. 蘇聯의 援助下에 建設된 「아스파항」製鐵所의 준공식에 參席한 바 있다. 이를 契機로 「이란」의 「호베이다」首相이 1973年 8月 蘇聯을 親善訪問하였다.

(마) 「이라크」

1972年 4月 蘇聯, 「이라크」友好協力締結. 「이라크」은 現在 蘇聯의 「페르샤」灣 進出의 重要 拠点이 되고 있다.

(바) 「에집트」

1971年 5月 蘇聯, 「에집트」友好協力條約締結

(아) 「소마리아」

最近에 通信基地가 完成되어 印度洋의 蘇聯艦隊와 「모스크바」間의 直接交信이 可能하게 되었다.

(2) 東南「아시아」進出現況

蘇聯은 現在 「필리핀」과 越南을 除外하고는 東南「아시아」의 모든 國家와 外交關係를 맺고 있으며 經濟, 文化交流을 通하여 同地域의 「말레이지아」, 「싱가폴」, 「타이」, 「필리핀」과의 紐帶를 強化하고 있다. 特別히 蘇聯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가 明白히 한 「마라카」海峽에서의 軍艦과 20萬 ton 以上の 「탱카」船의 通行制限措置에 贊成하고 「베트남」戰 以後 東南「아시아」에서 「말레이지아」, 「싱가폴」, 「인도네시아」를 맺는 3角地帶에 對한 勢力擴張에 注力하고 있다.

(가) 越盟, 南「베트남」臨時革命政府

1973年 7月 蘇聯, 越盟, 經濟復興援助에 合意하고 1973年 8月 蘇聯·南「베트남」革命政府間에 經濟援助協定이 締結되었다.

(나) 「캄보디아」

蘇聯은 「시아누크」聯合政府에 對立하는 「론놀」政權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었으나 最近 解放勢力이 勝利할 公算이 커지자 蘇聯은 「시아누크」를 承認하였다.

(다) 「싱가폴」

蘇聯은 「싱가폴」에 東南「아시아」最大의 大使館을 建設中에 있으며 이곳을 東南「아시아」最大의 基地로 確保하여 美國, 西歐, 日本等の 經濟進出에 關한 情報수집을 하며 中共의 東南「아시아」進出이 對備하고 있다.

(라) 「말레이어」

1972年 9月 「말레이어」의 「라라크」首相을 「모스크바」에 招請. 蘇聯은 「말레이어」의 東南「아시아」中立化 構想을 支持한 바 있다.

(마) 「필리핀」

1973年 3月 「마르코스」大統領夫人을 蘇聯에 招請한 바 있으며 蘇聯은 中共보다 앞서 「필리핀」과 國交關係를 樹立하려고 積極的인 工作을 展開하고 있다.

이와 같은 蘇聯의 對「아시아」進出은 太平洋艦隊의 莫強한 海軍力을 背景으로 하여 推進되고 있다.

日本防衛廳의 推定에 依하면 蘇聯 太平洋艦隊는 最近 몇年동안에 현저히 增強되고 있으며 綜合戰力에 있어서는 美 第7艦隊의 80隻, 60萬 ton (原子力空母 1隻, 攻擊用空母 2隻, 原子力潛水艦 5隻 포함)을 능가하는 程度로 擴大되고 있다고 한다. 蘇聯의 太平洋艦隊가 保有하고 있는 艦艇은 750隻以上, 110萬 ton에 이르며 空母는 建設中에 있으며 이것이 原子力空母인가 혹은 核裝備可能型인가는 明確하지 않다. 其中에서 潛水艦이 30隻에 達하여 「우라지보스토크」軍港外에 「캄차카」半島의 「페트로라브로스크」와 「따따르」海峽에 面하고 있는 「소베트스까야·가반」에도 海軍基地를 保有하고 있다. 이와 같은 蘇聯의 太平洋艦隊는 「Ocean Coming Fleet」(遠洋艦隊)로서의 地位를 確立하는 程度로 눈부신 急成長을 이룩하였다. 이를 爲해 同艦隊는 最近에는

「하와이」. 「괌」島方面에까지 作成行動을 展開할 수 있게 되었으며 太平洋에의 通路로서는 朝鮮海峽. 擇捉. 国後兩島의 中間과 津輕海峽을 通過하여 今年의 前半期에 만도 津輕海峽을 通過한 艦艇이 20 數隻이 確認될 程度로 日本의 北方水域은 蘇聯海軍의 重要戰略 拠点으로 變化하고 있다.

더우기 2次大戰當時 日本聯合艦隊가 出發拠点으로 使用했던 擇捉島의 「히트카프」灣은 現在에도 數千ton 級의 艦艇이 容易하게 停泊할 수 있으며 軍港으로서도 良港으로 꼽히고 있으며 太平洋에 面한 唯一의 不凍港으로서 太平洋艦隊의 準基地化가 進行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아시아」 諸國의 反應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到 對한 「아시아」諸國의 反應은 多樣한 樣相을 띠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冷談하고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우선 中共의 境遇를 보면 北京의 指導部는 蘇聯의 同構想到 對하여 「反中共包圍網形成의 陰謀」라고 判定하고 決續적인 反撥을 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蘇聯은 「同構想이 中共을 봉쇄하려는 意圖가 있다고 非難하는 것은 惡質적인 煽動이며 中共도 完全한 平等의 資格으로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 參與할 수 있다 그리고 反論을 提起하고 있으나 蘇聯이 어떻게 변명을 하든 同構想이 結果的으로 北京의 孤立化, 對中共包圍에 이어진 것이라는 事實은 否定할 수가 없다.

특히 中共은 「다나카」首相의 蘇聯訪問을 앞두고서 蘇聯이 意識的으로 「아시아」集團安保體制 問題를 前面에 내세우고 이의 實現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點에 注目하고 「브레즈네프」構想을 「反中共包圍網形成」의 視點에서 激烈하게 反撥을 하였다.

73年 8月 26日 中共의 共産黨機關紙人民日報와 蘇聯共産黨機關紙 「루라우다」는 때를 같이하여 相互 激烈한 非難·攻擊을 加하였다. 兩國의 論爭은 相對國의 外交政策 全般에 걸친 包括的인 性格을 띠고 있지만은 그 根底에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 對한 非難 (中共)과 擁護 (蘇聯)가 갈려 있다. 以下 兩個 論說의 要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中共의 對蘇非難 (73. 8. 26 日字 人民日報論說「두개의 王朝, 하나의 검은 線」)

- 帝政「로마노프」王朝와 「후르시홀브-브레즈네브」王朝는 大 「로시아」主義와 侵略的인 擴張主義라는 하나의 검은 線으로 一貫되어 있다.
- 蘇聯修正主義集團은 「짜리. 로시아」가 세 제제 패를 目標로 하였던 바를 否定하고 「짜리. 로시아」의 植民地獲得은 他國의 擴張을 防止하고 植民地人民을 他國에의 隸屬으로부터 離脱시키기 爲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 「짜리. 로시아」가 他國을 占食하고 他國征服을 敢行한 것을 「善隣政策」이라고 信奉하고 「짜리. 로시아」의 併合을 「相對側의 希望에 依해서 併合」한 것이라고 歪曲시키고 있다.
- 「브레즈네브」政權의 對外政策도 「侵略的인 擴張主義이며 社會主義의 옷을 입은 名實相符한 社會帝國主義이다.」

(2) 蘇聯의 對中共非難 (73. 8. 26 日字「뿌라우다」의 論說「中共指導부의 外交路線의 若干의 基礎的 方針에 關하여」)

- 對外政策의 諸問題에 關한 中共指導부의 路線에는 理論의 面에서나 實際面에서 階級的: 「마르크스. 레닌」主義的 立場

에서부터 離脱하고 있음이 明確하다.

- 오늘날 中共指導部는 「브르조나」思想으로부터 借用한 反動的 거짓理論을 信奉하고 있으며 그것에 依하면 歷史的 發展過程을 規定하는 것은 世界속의 모든 中小國과 美國, 蘇聯이라는 二個의 「超大國」間의 「葛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毛澤東主義者들은 여기에 「二個의 中間地帶」에 屬한 어리석은 「테제」를 附加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第一地帶」)의 迫脅받는 諸國民은 「西와 東의 若干의 重要資本主義諸國」(「第二地帶」)과 「共通의 利益에 依해서 結付」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超大國」과의 鬪爭에 있어서 이 「地帶」와 聯合해야하며 聯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理論에 基礎하여 毛澤東集團은 世界第一의 社會主義國인 蘇聯邦을 自己나름대로 主要한 「敵」으로 간주하려고 하고 있다.
- 階級的 社會主義的 政策으로부터의 毛澤東指導者의 離脱은 「第三世界」諸國과의 關係에서도 進捗되고 있다. 中共指導部는 社會主義共同體로부터 民族解防鬪爭을 孤立 시키는 것에 最優先의 努力을 加하고 있다.
- 毛澤東主義者들이 「테제머니」爭奪에 執念하고 있다는 것은 東南「아시아」와 南「아시아」에 있어서의 그들의 行動이 證明하고 있다. 여기에는 北京의 庇護 밑에서 独自の 東南「아시아」諸國羣衆, 政治구분 劃設의 構想이 包含된다.

이와 같은것은 「第三世界」의 發展途上國家들의 眼前에서 印度의 平和愛護政策에 트집을 잡으며 印度를 國際적으로 孤立시키려고 企圖하는 北京의 變함 없는 政策이 如實히 말해주고 있다. 같은 方法으로 自由와 獨立을 爲한 鬪爭의 決定的인 時期에 「벵그라데슈」의 國民에 敵對하는 極端的인 反動的 軍事勢力과 北京이 同盟을 맺고 있는 것도 說明이 된다.

- 緊張緩和, 資本主義世界의 反動侵略勢力의 孤立化, 社會主義世界의 立場과 共產主義·勞動者·民族解放運動의 強化를 指向하는 社會主義共同體 諸國과의 原則的인 政治方針과는 달리 毛澤東指導部는 戰鬪的인 反蘇主義의 立場에서 있으며 侵略的 報復主義政策을 實施하며 進歩勢力에 反對하고 파괴的인 「冷戰」政策의 持續을 贊成하고 있는 가장 反動的인 帝國主義勢力과 公然하게 政治的으로 結託하는 方向을 取하고 있다.
- 「第三世界」諸國에 있어서의 自身의 戰術에 따라서 毛澤東主義者들은 中共人民을 包含한 「아시아」大陸의 모든 國民의 利益에 合致되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創設의 提案에 正面으로 反對하고 있다. 中共指導部는 이러한 構想의 提案에 對해서 「아시아」에서의 美軍駐留의 存續을 支持하고 나서고 있다. 이 點에 關해서 周恩來는 美國의 「포드」, 「복스」 兩議員에게 말하였다. 北京은 日·美安保條約과 極東에 있어서의 美國의 「核우산」提供을 事實上 支持를 하고 있다.

한편 蘇聯과 友好條約이 締結되기 以前인 1969年 印度는 「이미 全体的인 行動計劃이 樹立된 것이 아니고 아직 着手段階이며 蘇聯이 意圖하고 있는 方向만이 提示한 것 뿐」이라고 論評하고 있다. 그러나 1971年 8月 印度는 이미 蘇聯과 平和·友好·協力條約이 締結된 바 있음으로 現在의 態度는 極히 同調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버마」는 中共과의 敵對關係를 고려하여 同構想에 회의的인 態度를 表明하고 있으며 「네팔」 또한 中共과의 關係 改善을 감안하여 同構想에 對해서는 贊成하지 않고 있다. 「스탄」은 蘇聯으로부터 經濟援助의 惠澤을 받고 있으면서도 中共과의 關係惡化를 우려하고 있기때문에 蘇聯의 構想에 同調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實情이다.

泰國의 同構想에 對한 否定的인 態度는 Bangkok post 紙에 發表되었던 泰國外相의 見解에서 明白히 들어난 바 있었다. 即 同外相은 「蘇聯이 自國의 立場을 確立시키기 爲해 協力體制를 主唱하고 있다는 點은 理解할 수 없는 것으로서 注意를 喚起시키고 있다.」라고 指摘하며 蘇聯의 對東南「아시아」浸透傾向에 對하여 솔직한 警告를 하였던 것이다. 「싱가폴」은 蘇聯과의 交易關係에 매력을 갖고 있으나 아직은 「오스트레일라」와 「뉴지랜드」에 關心이 많고 더욱이 中共과의 關係惡化를 우려하여 蘇聯의 構想에 關心을 갖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中共으로부터의 威脅이 死活的인 것은 아니나

可及的이면 反中共同盟關係에의 介入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以上 指摘한 바와 같이 蘇聯이 提案하고 있는 集團安保 構想에 對해 「아시아」國家들이 否定的인 意思表明을 하고 있음에 反해 惟獨 「말레이어」는 同案에 對한 解釋을 달리하고 있는 바 어느 意味에서 特異한 現象으로 간주된다.

1969年 9月 「라자크」首相은 記者會見에서 蘇聯은 「말레이어」에 對해 깊은 関心을 表明하고 있다는 點을 強調하면서 그는 『蘇聯은 「말레이어」에 友好的인 態度로 接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安定된 國家로 評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東南亞諸國은 同地域의 安全을 維持하기 爲해 蘇聯을 包 容한 強 大國으로부터의 도움을 必要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어」로서 는 蘇聯艦隊가 印度洋에 出現한 것이 同地域을 危脅하기 爲한 目的에서가 아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蘇聯의 對「아시아」 進出에 對하여 支持하는 態度를 表明하였다. 또한 1972年 9月 「라자크」首相이 蘇聯을 訪問하였을 때 蘇聯은 「말레이어」가 提案한 東南「아시아」의 中立化構想을 支持한다고 밝히고 「라자크」首相은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을 基本的으로 支持한다는 뜻을 表明하였다. 「말레이어」는 蘇聯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있으며 蘇聯의 「말레이어」로부터의 生고무輸入은 他國에 比해 그 比重이 크다. 이와 같은 「말레이어」와 蘇聯과의 相関關係를 감안할 때 이들 兩國의 最近의 動態는 注目의 對象으로 되어 있다. 다만 現在 「말레이어」가 이렇듯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에 對하여 原則的인 支持를 하고 있으면서도 積極的인 支持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中共에 對한 배려 때문인 것으로 分析된다.

「아시아」諸國의 反應에서 特別히 注目視되는 點은 同構想에 對한 北韓과 越盟의 애매한 態度이다. 北韓과 越盟이 「아시아」의 같은 共黨國家이면서도 여태까지 회의적이며 積極的인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 原因을 두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첫째 蘇聯의 構想이 「아시아」의 現國境線의 現狀固定化를 當面 目標로 있는만큼 이것이 그들의 赤化南侵政策에 背馳되며

둘째 中共의 영향력이 이들에게 強하게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以上 考察한 바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一部國家를 除外한 「아시아」大多數國家가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에 對하여 冷淡하고 否定的인 態度를 견지하고 있는 要因中의 하나가 中共을 強하게 意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共通要因이 導出된다.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中共의 同構想에 對한 反撲은 「아시아」諸國에 對해 強力한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同構想의 實現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日本政府가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에 對하여 어떠한 反應을 보이며 이에 어떻게 對處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는 우리의 安保問題와 關聯하여 볼때 매우 重要視됨으로 項을 달리하며 규명하기로 한다.

6. 同構想의 參與國家범위問題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이 같은 애매모호성은 비단 「아시아」의 既存 地域協力體制나 双粉 또는 地域防衛體制와의 關係를 어떻게 規定하는가. 하는 問題에 만 極限되어 있지 않다.

機會가 있을 때마다 蘇聯은 「아시아」國家들에게 아무런 例外 없이 同等한 資格으로 集團安保體制에 參與하기를 바라고 言明하고 있으나 分斷國의 參與問題에 關해서는 상금까지 明確한 回答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關聯되는 「푸라우나」派의 論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의 集團安保를 確立함에 있어서는 「아시아」諸國의 共同努力이 要求되고 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아시아」集團安保에 寄與해 줄 것을 呼訴하는 바이다. 蘇聯의 立場을 말한다면 우리는 「아시아」集團安保를 推進함에 있어서 「아시아」諸國들과 積極적으로 協力할 用意가 있다. (「푸라우나」 73. 8. 24日字社說「아시아」에 平和와 安全保障을]

「蘇聯은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에 關하여 單順하고도 明白한 立張을 내세우고 있다. 이 集團安保體制에는 例外 없이 「아시아」의 모든 國家들이 同等한 權利를 갖고 參與해 주기를 呼訴하고 있다. 이러한 原則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와 類似와 體制를 形成하자

고 提議하고 있다. (「뿌라우나」 73. 9. 11日字 論說「아시아」는 平和의 原則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있어서 여기서 疑問視되는 點은 蘇聯이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과 關聯하여 말하는 「國家」의 限界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이 말하는 「國家」에는 分斷國의 雙方을 모두 包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分斷國의 一部(韓國과 越南)를 除外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이 問題의 解答을 얻기 爲해 「蘇聯은 分斷國의 雙方의 參與를 意圖하고 있다.」라는 假定을 設定할 때 다음과 같은 肯定과 否定的인 事實이 兩立하게 된다.

(1) 肯定的 事實(分斷國의 雙方의 參與를 意圖하고 있다.)

(가)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은 「아시아」의 現國境線의 現狀固定化를 核心으로 하고 있음으로 分斷國의 現休戰線問題를 處理함에는 分斷國의 雙方의 參與가 不可避하다.

(나) 蘇聯은 最近韓國의 門戶開放政策에 好意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即 지난 5月 演劇人 유덕형氏에게 첫 「비자」를 發給한 때 이어 「유니버시아드」韓國選手團의 入國을 許容한 바 있다.

(다) 北韓과 越盟이 同構想에 對하여 積極的인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회의적인 態度를 取하고 있다. 이것은 蘇聯이 韓國과 越盟을 同構想에 參與시키려는 意圖에 對한 反撲로 解稟될 수

있다.

(라) 蘇聯은 韓國의 6.23 宣言에 對하여 公式的인 論評을 回避하고 있으며 金日成의 平和統一 5 個方案에 對하여서도 微溫的인 支持에 끝이고 있다. 이것은 蘇聯이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 支持하고 있는 데서 나온 現象으로 判斷된다.

(마) 蘇聯이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 支持하고 있는 것이라면 韓國과의 外交關係의 樹立까지도 고려에 넣고 있는 것으로 類推할 수 있다.

(2) 否定的인 事實(韓國과 越南을 排除하고 있다.)

(가) 同構想은 中共의 強力한 挑戰에 直面하고 있으며 韓國과 越南을 排除하지 않는다면 北韓과 越盟의 支持를 獲得할 수 없다.

(나) 蘇聯은 同構想을 積極 推進하고 있으면서도 北韓과 越盟에 對해서는 同構想을 내리막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蘇聯 自身 分斷國의 參與問題에 對해서는 아직까지 決定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基因된다고 判斷된다.

(다) 1973年 6月4日 訪日中에 있던 「우라우다」紙의 政治評論員 「마에프스키」는 日本의 每日新聞의 論說主幹 高橋武彦과의 會見에서 分斷國들도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 그대로 參加해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質問을 받고 그는 「이 問題에 있어서 당신과

나라의 意見이 다르다. 中國은 最近까지 分断国家이었다. 그러나 蘇聯이 認定해온 나라는 中共뿐이다. 우리는 兄弟国家인 北베트남과 北韓의 存在밖에 認定하지 않는다.」라고 言明하였다.

(라) 蘇聯의 韓國과의 外交關係樹立은 現在 駐韓美軍의 撤收가 大前提로 되어 있다. 그런데 現在 駐韓美軍의 撤收可能性은 없다.

이와 같은 分析에 基礎하여 볼 때 現段階에 있어서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 參與하는 國家範圍은 分断國에 限한 即 蘇聯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나라에 限定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上記 肯定的, 否定的인 諸事實 가운데서 「마에프스키」政治評論員의 發言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러한 判斷은 固定不變한 것이 못된다. 아직까지 이 點에 關한 蘇聯의 公式的인 態度表明이 없고 最近 蘇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柔軟性으로 보아 國際情勢의 變化와 四大強國의 力學關係, 「아시아」情勢의 축이 과정의 어머함과 南北對話의 進展等의 變數가 어떻게 作用하는데에 따라 同構想에의 參與國家問題는 決定되리라고 展望된다.

7. 同構想의 不透明性에 對한 日本 의 反應과 基本方針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体制 構想에 對하여 日本政府가 보이고 있는 反應과 基本方針은 蘇聯이 同 構想을 通해서 노리는 點이 무엇인가에 關해서 많은 示唆와 教訓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日本은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同 構想의 實現에 否定的이며 매우 慎重한 態度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 記述하는 內容은 1973年 10月 「다나카」首相의 蘇聯訪問을 앞두고 同 構想이 「다나카·브레즈네프」會談의 主要議題의 하나로 될 것으로 보고 日本政府가 나타낸 反應과 同 構想에 對한 基本方針이다.

(1) 同 構想은 現狀固定的이다. 現在있는 그대로의 領土를 固定化시킨 土台위에서 懸案問題를 解決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同 構想의 原則中の 하나가 「國境不可侵」으로 되어 있는 것은 蘇聯이 以前부터 主張하고 있는 現 國境線의 現狀 固定을 意圖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方領土의 返還은 日本 國民의 悲願이며 領土問題를 不解決의 狀態에 두고 現狀을 固定하려는 것은 納得할 수 없다.

日·蘇關係의 進展을 爲해서는 領土問題의 解決이 不可欠이다.

(2) 「아시아」情勢에 對해서 日本政府는 蘇聯과는 많은 異見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蘇聯은 「아시아」에 集團安保体制의 形成의 時期가 到達하였으며 그것이 實現 可能하다고 強調하고 있

으나 日本政府는 「아시아」地域은 歐洲와는 다르며 如前히 不安定하고 複雜한 狀態에 놓여 있다. 따라서 아직 集團安保體制를 論議할 程度로 時期가 成熟되여 있지 않다. 특히 昨年에 國交를 回復한 中共이 強力하게 反對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蘇聯의 유혹에 말려들 수가 없다. 「아시아」에서의 大國을 除外하고서는 集團安保體制를 生覺할 수 없으며 따라서 中共의 參加가 不可欠의 條件이다.

(3) 美國의 參加問題이다. 美國이 「아시아」에서 撤収한다고는 하지만 如前히 「아시아」에 「힘」과 영향력을 保有하고 있다. 美·日 安保條約에 依한 美·日關係를 外交의 基軸으로 삼고 있는 日本으로서 最大의 同盟國인 美國의 參與없이는 蘇聯의 構想에 參加할 수 없다.

(4) 既存防衛體制와의 關係가 明確하지 않다. 即 蘇聯이 美·日 安保條約을 비롯한 既存條約에 對하여 變更를 要求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意圖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蘇聯의 提案은 逆으로 「아시아」의 平和와 安全을 파괴하는 結果를 惹起하게 될 것이다.

上記 內容을 간추려 보면 「아시아」情勢에 對한 評價에 있어서의 日本과 蘇聯間의 見解差異와 日本이 우려하고 있는 點이 무엇인가가 뚜렷해 진다.

※ 同 構想의 非現實性

㉞ 集團安保인 以上 모든 國家가 參與해야 한다.

- (나) 「아시아」情勢는 歐洲와는 다르며 如前히 不安定하고 複雜한 狀態에 놓여 있으며 아직 時期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 (다) 同 構想의 原則中의 하나가 「國境不可侵」으로 되어 있는 데도 北方領土는 未解決의 狀態에 놓여 있다.

※ 基本方針

- (가) 北方領土問題와 平和條約締結이 먼저 解決되어야 한다.
- (나) 日・美安保條約을 비롯해서 其他 日本의 基本條約에 대하여 蘇聯은 變更을 要求하지 않는다.
- (다) 中共이 參加해야 한다.
- (라) 美國이 參加할 것.

여기에서 日本의 態도와 基本方針이 意味하는 것은 明白하다. 첫째 北方領土의 返還을 考慮하여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가 意圖하는 現 國境線의 固定化를 警戒하고 있다. 둘째 中共을 크게 意識하고 있는 點을 들 수가 있다. 셋째 蘇聯이 同 構想을 통해서 美・日安保條約을 비롯한 既存防衛體制의 排除의 可能性에 대해 最大의 警戒를 하고 있다.

지난 10月7日 「다나카」首相의 訪蘇로서 發表된 日・蘇 共同 聲明에서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 대한 言及이 欠如되고 重要 懸案問題인 平和條約締結과 北方領土의 處理가 1974年으로 미루어진 것은 北方領土問題는 이미 解決이 되어 있다라고 강경한 態度를 取해오던 蘇聯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讓步를 意味하는 것이며 日本에게는 反對로 커다란 成果라고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日本政府가 이렇듯 外交的인 讓步를 蘇聯에게 強要할 수 있었던

것은 日本政府가 既樹立한 上記 基本方針을 強力하게 主張한데서 온 結果라고 評價된다.

이 問題(「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의 背他性)와 關聯하여 言及되어야 할 것은 日本이 構想하고 있는 「「아시아」·太平洋諸國會議」와 美國이 標榜하고 있는 「新大洋憲章」이다. 이 두 構想이 모두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을 考慮에 넣고 提起되었다는 點이다.

『「아시아」·太平洋諸國會議』構想은 今年 1月 施政演說에서 「다나카」首相이 提唱한 것이며 中共, 越盟을 包含하는 「아시아」·太平洋諸國으로 構成되는 汎「아시아」會議를 開催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다. 同 構想이 提唱된 以來 「아시아」諸國이 새로운 地域協力機構를 만드는데 慎重한 態度를 보여 進展을 보지 못하였으나 지난 7月에 들어서서 「로저스」 美國務長官이 美·日 貿易經濟合同委員會에서 同 構想에 깊은 關心을 表明함으로써 國際政治舞臺에 크게 抬頭되었다. 美國이 同 構想에 關心을 表明하게 된 底意는 美·蘇接近이 이루어지고 있는 狀況에서도 「아시아」·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美國의 優位를 계속 確保하기 爲해 中本中心의 地域協力機構를 形成하여 蘇聯이 推進하고 있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에 對抗케 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蘇聯 亦是 그들이 推進하고 있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아시아」의 平和와 安全을 圖謀하려는 것이라면 日本의 構想에도 關與할 用意가 있다고 하며 日本의 構想에 關心을 表明한 바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日本을 自己便에 끌어들이기 爲한 方便에 不過할 것이다.

지난 4月 「키신저」補佐官에 依래 提起된 新大西洋憲章은 勿論 歐洲를 主對象으로 하고 歐洲情勢의 緊張緩和로 NATO가 弱化되고 西歐諸國의 團結의 解弛를 再結束시키기 爲해 美國, 歐洲, 日本을 主軸으로 하는 새로운 聯合勢力의 形成에 目的을 두고 蘇聯의 對歐洲 平和攻勢에 對備하기 爲해 構想된 것이기는 하지만 同 構想은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의 形成을 牽制하려는 意圖도 內包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에 對한 日本政府의 우려는 비단 日本에게만 限定된 것이 아닌 「아시아」의 모든 國家들에게 있어서는 共通되는 우려로 되어 있는 것이다.

「아시아」의 大多數 國家가 蘇聯의 構想에 對해서 冷談하고 否定的인 態度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이 갖는 不透明性인 것이다.

8. 對 備 策

앞에서도 여러번指摘한 바와 같이 蘇聯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推進하고 있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이 既存地域協力機構, 雙務 또는 地域防衛體制를 排除하는 것인가, 아니면 同時 共存을 認定하는 것인가, 하는 點에 關해서 明確한 問答을 주지 않고 「애매모트」한 態度를 取하고 있다. 蘇聯이 同構想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 問題에 對하여 不透明한 態度를 取하고 있다는 것 自體가 蘇聯의 構想은 어떤 時期에 가서는 既存地域協力機構나 雙務 또는 地域防衛體制를 解消시키려는 意圖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断定하지 않을 수 없다.

蘇聯이 最近 그들의 平和共存政策의 하나로서 「아시아」情勢의 緊張緩和를 들고 「아시아」의 緊張緩和가 SEATO와 CENTO의 存續을 危機에 봉착하게 만들고 ASPAC의 無期延期決定을 낭게 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蘇聯이 그들의 對「아시아」政策에서 노리는 窮極의 目標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蘇聯이 對「아시아」政策에서 意圖하는 窮極의 目標는 美軍事力の 「아시아」로부터의 撤退와 「아시아」地域內的 既存地域協力機構와 「아시아」諸國과 美國間의 安保條約은 勿論 地域性格의 防衛體制를 解體하는 데 두고 있다.

지금 보기에선 마치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이 中共 包圍網形成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색채를 짙게 풍기고

있으나 이것은 中共의 挑戰이라는 火急한 當面問題에 對處하기 爲한 措處이며 現在 蘇聯은 美·日과 손을 잡고 中共의 孤立化에 拍車를 加하기 爲해 심지어 「아시아」의 反共國家들에게까지 微笑政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은 이러한 窮極의 目標達成을 爲한 遠大한 戰略의 一環으로 判斷할 수가 있다.

萬一에 蘇聯이 既存 地域協力機構나 雙務 또는 地域防衛體制的 存在를 客認하는 境遇(現在로서 이러한 可能性은 없는 것이지만)에도 事情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現在 「아시아」諸國은 어떤 特定國家가 中心이 되거나 主導하는 安保體制的 形成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설사 그런 安保體制가 形成되어 參加國들이 武力포기를 約束하더라도 다른 參加國이 언제나 그 協定을 준수하리라는 絶對的인 保障을 期待할 수 없다는 事實을 明確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軍事防衛同盟까지 締結했던 中·蘇兩國이 오늘에 와서는 敵對的인 對立을 하고 있고 相互 相對國의 戰爭挑發에 對備하여 中·蘇接境地帶에 軍事力을 增強하고 있는 事實이 이를 應變으로 證明해 주고 있다.

또한 蘇聯은 앞에서 考察해본 바와 같이 分斷國의 參與問題에 對해서도 明確한 回答을 회피하고 있으며 現在로서는 分斷國의 一方(北韓, 越盟)만의 參與에 限定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事態의 進展에 따라서는 分斷國의 雙方의 參與까지를 認定하게 될 可能性이 全혀 없는 것도 아니다.

中共이 同構想到 決死的인 反對를 하고 있고 日本을 비롯한 「아시아」의 大多數國家가 否定的이고 冷談한 態度를 取하고 있음으로 同構想의 早期實現은 不可能하다는 觀測이 支配的이기는 하나 우리는 最惡의 境遇에 對備하는 切實한 對策을 事前에 樹立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의 具體化의 條件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條件을 提示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無期延期決定이 내려진 ASPAC이 계속 地域協力機構로서의 機能을 회복하도록 外交的인 努力을 強化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諸國에게 어떠한 새로운 地域協力機構가 創設된다 하더라도 여태 「아시아」의 地域的인 協力を 圖謀해온 ASPAC 以上の 寄與를 期待할 수 없다는 事實을 周知시키는 弘報活動을 展開하여 ASPAC을 無期延期決定이라는 冬眠狀態에서 회생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萬若 蘇聯이 우리에게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의 參與를 회유해오는 경우 우리는 日本이 現在 主張하고 있는 바와 같이 美國의 參與와 韓·美安保條約等を 비롯한 基本條約에 對해서 蘇聯側이 變更을 要求하지 않는다는 條件을 내세워 이와같은 條件이 貫徹되지 않는 경우에는 同構想到 參與할 수 없다는 斷乎한 態度를 取해야 할 것이다.

셋째, 蘇聯이 우리의 條件을 모두 수락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蘇聯의 構想이 「아시아」의 現國境線의 固定化를 核心으로 하고 있다는 點을 감안, 南北統一을 可能케하는 余地를 남겨놓도록 해

야할 것이다. 南北統一의 余地를 없애며 韓半島의 分斷을 永久化 하려는 어떠한 決定文이나 宣言文의 採擇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警戒해야 할 것이다.

歐洲와는 달리 「아시아」情勢는 아직도 不安定하고 複雜한 狀態에 놓여있다는 特殊性이 強大國들로 하여금 이에 造成되어 있는 勢力均衡을 自國에 有利한 方向으로 勢力改編을 하려는 余地를 남겨주고 있으며 이에 유혹을 느끼고 있다.

美·中·日·蘇 4大國은 相互 利害의 共通點을 찾아 提携하는가 하면 他國間의 利害의 相反되는 點을 離間·擴大하는 競合 相衝하는 關係속에서 勢力均衡을 維持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蘇聯이 推進하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의 構想도 現在 造成되고 있는 勢力均衡을 自國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改編하려는 戰略으로 評價된다. 때문에 日構想에 對한 계속적인 경계가 要求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 | | |
|------|-------------|
| 뿌라우다 | 73. 7.22 日字 |
| " | 73. 8. 7 日字 |
| " | 73. 8.16 日字 |
| " | 73. 8.22 日字 |
| " | 73. 8.26 日字 |
| " | 73. 8.30 日字 |
| " | 73. 9. 7 日字 |
| " | 73.10. 2 日字 |
| 朝日新聞 | 73. 6.19 日字 |
| " | 73. 7.19 日字 |
| " | 73.10.11 日字 |
| 毎日新聞 | 73. 6. 5 日字 |
| " | 73.10. 3 日字 |
| 世界週報 | 73. 9. 4 日號 |
| " | 73. 9.18 日號 |
| 政經研究 | 73.10.月 號 |

